

세터 안혜진의 성장...GS 우승 도전의 '키'



GS칼텍스는 지난 시즌에 이어 또 한번 '원팀'으로 뚝뚝 뚝쳐 2021~2022시즌 우승에 도전한다. 지난 시즌 트레블의 주역 이소영과 메레타 리츠가 이탈했지만, 새 시즌에도 GS칼텍스는 공격-수비-연결 모두 탄탄한 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사진제공 | GS칼텍스 서울Kixx

안혜진, 올림픽 경험으로 넓어진 시야 강소휘·최은지·유서연 삼각편대 지원 184cm 새 외인 모마 서브능력 기대 차상현 감독 "키보다 팀플레이 중요"



GS칼텍스는 2020~2021시즌 V리그 여자부 사상 최초로 트레블(3관왕)을 달성했다. 사람들은 대기록에 박수를 쳤지만, GS칼텍스의 힘은 다른 곳에 있었다. 시즌 30경기를 치르면서 단 한 번도 세트스코어 0-3으로 패하지 않았다. 지더라도 최소 한 세트는 때내겠다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모두가 '원팀'을 외치도록 만들었고, 절고 빠르면서 끈질긴 배구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온 차상현 감독의 독심이 만든 성과다. '우승은 좋은 선수가 많이 모인 팀이 아니라 좋은 팀이 되도록 마음을 모은 팀의 것'이라는 진리를 확인시킨 차 감독에게 구단은 3년 계약서를 새로 안겼다. 그가 추구하는 배구의 방향성을 믿는다는 증거다. 2021~2022시즌을 앞두고 에이스 이소영은 FA로, 2년간 함께해온 외국인선수 메레타 리츠는 일본 V리그로 떠났지만 5명의 FA 강소휘를 새로운 기둥으로 잔류시키는 한편 한수지, 김유리, 한다혜와도 계약해 전력누수를 막았다.

●트레이드 장인 차상현의 새 퍼즐 맞추기
정상에 우뚝 선 차 감독은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했다. 선수들도 마찬가지. 시즌이 끝나자 차 감독은 열심히 음

직였다. 함께 고생한 스태프의 처우개선을 위해 구단에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계약을 마치지마자 새로운 밑그림을 그렸다.

●이소영과는 아름다운 작별을 했다. 공백은 아쉽지만 변화를 선택할 시간이었다. 박혜민과 최은지를 맞바꾼 트레이드는 남은 선수들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묶기 위한 결정이었다. 2명의 수준급 리베로를 보유했음에도 보상선수로 오지영을 택했다. 그 계산의 결과가 궁금하다.

새로운 멤버로 나선 KOVO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차 감독은 여전히 워업준부터 코트까지 모두에게 기회를 주며 선수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도록 만들었다.

●선수는 바뀌어도 팀의 원칙은 그대로!

차 감독은 "누가 코트에 들어와도 잘 돌아가는 팀이 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며 '원팀'의 원칙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선수들과 어떤 합이 이뤄지느냐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날 순 있겠지만, 선수가 바뀐다고 팀을 이끌어가는 원칙이 바뀌는 일은 절대 없다"고 덧붙였다.

훈련 때는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그 후 시간에는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GS칼텍스의 팀 문화다. 신뢰를 바탕으로 차 감독은 '밀당'을 거듭하며 모두가 진심으로 팀을 위해 노력하게 만든다. 다른 팀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 팀의 중심은 감독이라는 것을 구단도, 선

수도 모두 인정하고 따른다. GS칼텍스의 진정한 힘은 여기서 나온다.

●더 빠르고 더 치열하게!

새 시즌 가장 달라질 것은 높이이다. 지난 시즌 GS칼텍스는 리츠의 엄청난 높이로 상대팀에 부담을 줬다. 새 시즌에는 리츠보다 무려 22cm나 작은 레티치아 모마 바스코코가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차 감독은 "우리 순번에서 원하는 외국인선수가 없어서 내 생각을 바꿔야 했다. 남은 선수들 중 한국배구에 맞고 우리 팀의 배구에 잘 녹아들 선수를 찾았다. 내가 원하는 배구의 기준에 가장 맞는 선수가 모마였다"고 털어놓았다.

많은 이들이 높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차 감독은 달랐다. "같은 기량이라면 키가 중요하겠지만 힘과 내 플레이가 된다면 키는 배제할 수 있다. 팀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본다"고 설명했다. 모마가 비록 리츠처럼 많은 득점을 올리진 않더라도 수비와 다른 부분에선 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2년 전 리츠를 뽑았을 때도 사람들은 느려서 안 될 것이라고 했지만, 훈련을 시키면 될 가능성을 충분히 봤다. 모마가 블로킹은 떨어지겠지만 다른 것에서 충분히 메울 것"이라고 장담했다.

지난 시즌 GS칼텍스는 팀 득점(2795득점), 공격성공률(41.30%), 오픈공격성공률(37.75%) 부문에서 1위였다. 리츠~이소영~강소휘의 날개공격이 위력적이었다. 서브(134개·세트 평균 1.098개), 블로킹(286개·세트 평균 2.344개)도 2위로

경쟁력이 있었다. 리시브(1079개·효율 41.11%), 수비(효율 28.27%), 세트(세트 평균 14.131개)마저 1위였다. 공격, 수비, 연결 모두가 탄탄했다.

●팀의 성패 좌우할 새 삼각편대

새 시즌은 강소휘~최은지~유서연이 왼쪽 공격과 리시브를 담당한다. 이들이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다. 도쿄올림픽을 경험하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자신감까지 장착한 세터 안혜진이 이들을 어떻게 살려낼지가 변수다. 강소휘는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당했던 부상회복이 변수다.

GS칼텍스는 여전히 서브에 감정이 있다. 강소휘, 안혜진 등 상대 리시버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마도 가세한다. 차 감독이 선택한 이유 중 하나도 서브능력이었다. 강력한 서브로 상대의 세트플레이를 막고 타격적으로 몰아간다면, 빠르고 젊은 선수들이 많은 GS칼텍스가 유리하다. 팀의 중심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가운데 주전 리베로 오지영이 영등이 근육 파열로 막판 훈련과 연습경기에 참가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지난 시즌보다 늘어난 36경기 체제에서 주 2회 경기가 펼쳐지는 새로운 환경은 코트와 워업존에 있는 선수들의 격차가 크지 않은 GS칼텍스에 유리할 전망이다. 차 감독은 "전력차이가 크지 않아서 컨디션이나 이전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서로 치고받는 양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방 |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차상현 감독 레티치아 모마 바스코코

GS칼텍스 2021~2022시즌 예상 스타팅 외더



Li 오지영 한다혜 한수진 김혜빈

※ OPP=라이트, WS=레프트, MB=센터, S=세터, Li=리베로

워업존 : 최은지, 권민지, 최유정(이상 레프트), 문지윤(라이트), 문명화, 오세연, 강소휘(이상 센터), 이원정, 김자원(이상 세터)

IN&OUT

IN

모마(새 외국인선수), 오지영(KGC인삼공사에서 FA 보상선수), 최은지(KGC인삼공사에서 트레이드), 김주희, 최유정(이상 신인)

OUT

리츠(일본 V리그 이적), 이소영(KGC인삼공사로 FA 이적), 박혜민(KGC인삼공사로 트레이드), 이현(신성팀 보상선수), 김재현(자유신분선수)

최근 6시즌 GS칼텍스 성적

시즌	정규리그 성적(승/패)	볼배구 성적	감독
2020~2021	20승10패·승점 58(1)	챔피언 우승	차상현
2019~2020	18승9패·승점 54(2)	시즌 조기종료	차상현
2018~2019	18승12패·승점 52(3)	PO서 탈락	차상현
2017~2018	14승16패·승점 40(4)	진출 실패	차상현
2016~2017	12승18패·승점 37(5)	진출 실패	이선구, 차상현
2015~2016	15승15패·승점 47(4)	진출 실패	이선구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소리를 크게 증폭하여 들려드립니다

최첨단 음성증폭기 오늘 대할인 행사

"저잡음 회로 설계로 잡음이 적으며 안전하고 간편합니다"

전문기업에서 생산한 음성증폭기 대할인 행사 오늘 50대 한정 할인판매!

필요하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선물!!

무선형으로 뛰어난 착용감, 초소, 초경량 음성증폭기
간전지가 필요없는 충전식(고속충전, 장기간 사용)
간편한 작동, 급속 충전방식으로 손쉽게 사용
청력에 맞추어 10단계 음향조절기능
이어폰 연결하면 양쪽 귀로 사용 가능(기본제공)

이런 때 사용하세요

- ▶ 가족, 친구와의 대화시 큰소리가 필요할 때
- ▶ TV시청시, 방송음을 좀더 크게 듣고 싶을 때
- ▶ 직장에서 상사의 부름을 크게 듣고 싶을 때
- ▶ 상담시 상대방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을 때
- ▶ 강사가 멀리 있어도 강의를 크게 듣고 싶을 때
- ▶ 두손으로 작업하면서 좀더 크게 듣고 싶을 때
- ▶ 종교행사시 좀더 크게 듣고 싶을 때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 이런 부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체험 후 구입하신 분/보통용 필름을 제거하신 분

길이: 5cm 무게: 7g

최신제품 Super A3000

1회 충전시 24시간 연속사용!
배터리 전량 확인가능 내장!
하위용량 방지 기능 내장!

무료상담전화 : 1661-9878 입금계좌: 농협 351-1015-0904-23 씨모아
서울시당지사: 02-6085-4414

1분에1000번이상! 딱딱딱! 강력하게!

편하게 누워서 자동발목 펌프기 10분이면~만보효과!

국내생산 자동발목펌프기~ 좋은선택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Made in Korea

허리, 어깨도 가능하도록 설계가업 되었다.
쉽고 간단한 조작 방식이 편리한 리모컨 8단계 강약 조절과 6가지 모드 선의 선택 기능으로 강력한 파워의 솔레노이드 안마봉을 탑재하였으며 가벼운 무게와 사이즈로 손쉬운 이동이 가능하다.
알아서 두드려주는 자동모드, 느긋하게 잠드는 수면모드, 자동 OFF, 풀잠들어도 OK! TV보면서O.K!
손발이 저리고 차가운 분, 온 몸이 쭈시고 아프신 분, 무릎이 아파 잘 걸지도 못하는 분,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아프신 분, 등치고 쭈시는 분들께 제격이다.

300분 한정특가로 199,800원에서 11만원할인된 89,800원에 한정판 매하며 신용카드도 구입할 수도 있다.
입금구좌: 농협: 356-1272-3414-43 (씨모아 김성정)으로 입금하면 로켓배송으로 익일 배송된다.
택배비 3,000원은 소비자 부담이다.

300분 한정 기념특가!
89,800원 무려 11만원 할인!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전화: 1661-9878 로 무료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시당지사: 02) 6085-4414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실외 운동이 어려울 때 실내에서 운동을 하거나 흥건스름 문제로 망설이던다.
소음없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핫하다는 발목운동기구를 소개한다.
발목자동펌프기는 단순 마사지가 아니다.
이 제품은 실내에서 건강을 챙길수 있는 좋은제품으로 지리 않았다. 단 10분으로 몸 전체가 순환이 잘 되면서 발목 및 근육을 탄탄하게 강화 자극이 위로 팽팡팡! 올라가면서 전신순환을 돕는 차원이 다른 발목 펌프운동기이다.
피로는 싹~!!! 하체부터 솟아나는 순환력!
발목뿐 아니라 목치고 피로한 중이리도!!!
제2의 심장 발바닥 경혈집도 지압펌프! 저리는 손가락 팽팡도 팽팡!